

종단소식

조계종

금산사 초파일 경로잔치

김재 금산사(주지 도영)는 22일 정북대 삼성문화관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이번에 준공된 대웅전은 지난해 이교도의 소행으로 보이는 방화로 전소된 이후 1년만에 원형 그대로 복원된 것이다.

천태종

관음사 보살계 수계법회

대구 관음사(주지 우학)는 19일부터 24일까지 보살계수계법회를 실시한다.

관문사 옥불 점안식

관문사(주지 운덕, 총무원장)는 26일 오전 9시30분 대법당에서 옥불 관음존상 봉안식을 행한다.

총지종

춘기강공 종법개정의의

총지종(총무원장 총지화)은 21~22일 전국 70여명의 스승들을 대상으로 제5회 춘기강공을 실시한다.

원효종

원효성사 1312주기 추모

원효종(총무원장 무진)은 25일 효창공원에서 원효성사 열반 1312주년 추모대회를 봉행한다.

일불선교종

제주 종무원장 강설스님

제주종무원장은 최근 영암사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종무원장에 강설스님을 추대했다.

태고종

강원교구 국난극복 기도

강원교구총무원(총무원장 편백은)은 26일부터 5월 2일까지 매일 새벽 4시, 오전 11시, 오후 6시 하루 3차례에 걸쳐 IMF극복을 위한 7일기도를 봉행한다.

향림사 종진스님 진산식

향림사(주지 차종진)는 14일 주지 진산식을 가졌다. 이날 종진스님은 '향림사 수호와 종단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주암 대웅전 상량식

관악산 성주암(주지 송중연)은 11일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흥국사 환경훼손 극심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 2차 오염실태 조사

공해 심해 문화재부식...신도 감소 쌍계사·천은사는 오수처리 양호

전남 여천 흥국사(주지 진만)의 사찰환경이 심각한 훼손위기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위원장 노관)가 4~10일 화엄사 천은사 쌍계사 보리암 문수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을 대상으로 '제2차 사찰환경오염 실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남 여천공단의 대기·수질오염으로 흥국사의 보물급 문화재 등이 부식당하는 등 사찰환경의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인사는 선덕여왕이 삼국통일을 기원하고 미아부인이 원당으로 삼기 위해 건립한 고찰로 87년부터 매년 선덕대왕 숭모제를 봉행하고 있다.

부인사 선덕여왕 숭모제 "호국정신이어 IMF 극복"

제12회 선덕대왕숭모제가 11일 팔공산 부인사 숭모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동화사 주지 무공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이 "환난극복을 기원하는 조계종 최고의 기도도량으로 중흥시킴"을 발원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국난극복 기원 만불 조성

도봉산 호암사 천연동굴에...천일기도 입재

국난극복을 기원하는 1만불이 조성된다. 환난극복기도도량 의정부시 호암사 호암사(주지 해우)는 경제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1만불을 조성키로 하고 천일 기도정진에 들어갔다. 법당위 범바위 천연동굴에 봉안될 1만불 조성불사는 단상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이 "환난극복을 기원하는 조계종 최고의 기도도량으로 중흥시킴"을 발원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문화재들이 부식당하는 것은 물론 마을 신도들이 하나 둘씩 떠나 사찰의 존립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흥국사에는 대웅전(보물 396호)과 대웅전 후불탱(보물 578), 홍교(보물 563호) 등 3점의 보물과 흥국사 원통전(지방유형문화재 45호) 등 지방문화재 3점을 보유하고 있음뿐만 아니라 흥국사 일원이 문화재자료 38호로 지정되어 있다.

환경 사찰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 쌍계사 천은사의 경우 자체예산으로 환경오염시설을 설치 가동중이며, 자체 자연식 정화시설을 이용한 오수처리시스템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김재경 기자)

"경제보다 문화우선"

문화부 국민 2천명 조사

우리나라 국민 중 78.8%가 다소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문화재와 역사유적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지난해 8월19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5세이상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앞으로 경제적 풍요보다 문화적 풍요(61.2%)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를 생각할 때 역사문화유산(35.5%)을 가장 많이 떠올리고 그 다음으로는 전통예술품(18.7%), 현대예술(17.8%), 대중문화(16.9%)의 순이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모여들어 부처님께 기도하며 무사히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주지 해우스님은 "부처님은 증생에게 괴로움을 없애 주는 발교여력과 한몸같이 여기는 동체대비의 실천을 보여줬다"며 "국난극복을 기원하는 1만불이 조성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은누리에 비취지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27일 관할 의정부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호암사는 1만불조성은 물론 80명 법당과 요사채도 건립하여 여법한 도량으로 태어난 날 예정이다. 불사 동참 문의 (0351) 873-1386

"경주남산 정화합니다"

5년 계획...올 문화재 40점 보수·휴식년 실시

신라의 천년 불국토 경주남산(사적 311호)의 보존을 위한 정비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문화재관리국과 경주시는 97년 경주문화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경주남산 5개년 보존정비계획'을 총예산 93억여원을 들여 올해부터 2002년까지 추진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지정 문화재의 우선 정비 △비지정 문화재는 등산로 주변의 석조물 가운데 복원가능한 것을 선정, 보존 △등산객의 급증과 무속행위에 의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입산의

유료화 및 자연휴식년제 도입 △산원인의 사유지 매입 및 민묘의 이장방안 강구 △남산순례길 조성·정비할 수 없는 곳이나 고경능한 역사적인 현장에 유래와 내력 등을 적은 안내판 설치, 교육장으로 활용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배리 삼존석 불입상(보물 63호) 등 40여점의 국가 지정 문화재가 우선 보수정비된다.

또 정비가 필요한 유적지의 경우 시굴 또는 발굴조사가 실시되며, 약수물에 흩어진 불상 등에 대한 정비확충사업도 이뤄진다.

경주고도 특별법 시안제시

市 공청회, 종합계획·특별기금안 등 담아

경주시가 고도보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주시와 시의회 및 경주지역발전협의회는 16일 경주 상공회의소에서 '고도보존 및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특별법시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고도보존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보존지역 및 복원지구의 지정 △고도보존 및 복원사업 비용의 국가부담 △고도보존 및 개발기금의 설치 △지역개발 채권의 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오영석교수(동국대)와 이태종교수(경주대)는 "특별법안은 고도경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포함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결집을 위한 특별전담반 구성을 제안했다. 정현교수(경주대) 등은 "개발공사 등을 하면서 문화재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문화유적이 파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주민피해 해소와 고도보존의 양측면을 고려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열린 오영석교수(동국대)와 이태종교수(경주대)는 "특별법안은 고도경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포함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열린 오영석교수(동국대)와 이태종교수(경주대)는 "특별법안은 고도경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포함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제천 고산사에서 열린 응진전 상량법회.

제천 고산사 응진전 상량법회

제천 고산사(주지 함원)는 12일 오전 11시 응진전 법당 상량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함원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영진(조계종 총회위원장)·공복(조계종 총회위원장)·현종(前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스님 등 30여명의 스님과 재가신도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날 함원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영진(조계종 총회위원장)·공복(조계종 총회위원장)·현종(前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스님 등 30여명의 스님과 재가신도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김선도씨 징역 5년

송병욱 상무 무죄

서울고법 BBS형량 판결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교방송 공금횡령 사건 공판에서 前 불교방송 상무 송병욱씨는 무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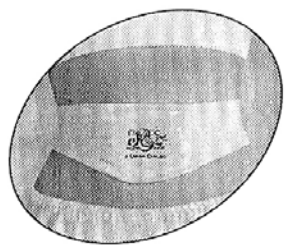
前 경리부 차장 김선도씨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 병욱씨는 1심에서 업무상 횡령혐의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30일 직권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香妃!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풀린다. 이 항비(배꼽)에 착용하면 방한용식물의 성분이 신경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보인다.

체질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걸린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이거나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배가 아프고 고통스럽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어 있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눈노나 감상신으로 고통을 당한다

상담실 080-200-4545

불교문화의 미래를 열어가는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8년 봄호 제 5호(통권 25호)



지선대담 / 불교방송 교리강좌 중계 박성배 교수에게 듣는다 ② 불교의 가르침,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불교계진단 / 불교계 수행풍토 바꿔야 한다 '토굴'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의 현실

칼럼/시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깨달음에 이르는 성불, 법구(法具)

특별기획 釋을 노래하는 無性의 시인, 게리 스나이더 생태학적 감수성의 시인 인터뷰 / 생활이 곧 기도 시가 곧 해인 시인 내가 만난 게리 스나이더

생태탐사기 팔공산 건설로 몸살나는 가야산 자연생태계의 중요성

산속기행 ① / 경복 스님과 자연 심소굴의 겨울 물 맛 같은 스님

성본 스님의 이야기 ⑦ / 숲의 종교와 사막의 종교

구독신청

구독료: 1년 32,000원(4호간) * 송금방법: 지류입금 또는 무통장 입금(입금주 이름과 주소를 알려 주십시오) * 구독처: 국민은행 827-25-0006-047 외환은행 189-13-02685-0 우체국 012245-0000499-11 농협 009-01-197161 지로번호 7630868 * 예금주: (재) 대한불교진흥원

불교의 문화 정기구독 신청 문의 Tel. 02-719-2606, Fax 02-719-5052